

## 심 의 평

화성시는 2022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민중심의 문화자치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례 상 ‘문화자치 협력 위원회’와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를 둘 수 있는데, 이중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는 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중심의 문화주체가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의체는 공연·전시 콘텐츠(문학) 분과, 생활예술 분과, 문화예술교육 분과, 예술 지원(장애예술) 분과, 청년예술 분과 등 총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지원을 받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4월 1일부터 1차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신청인원을 접수하였고, 4월 15일 모집마감 결과 총 62명의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연·전시 콘텐츠(문학)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 모두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였고, 일부 분과에서는 과반수(10명)에 미치지 않는 신청인원으로 정상적인 의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4월 29일부터 추가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19명의 인원이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81명의 신청인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의 시민들이 신청서를 지원하였는데 성별은 남성 38.3%, 여성 61.7%이었으며,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0.9%), 그 다음으로 40대(23.4%), 30대(18.5%), 60대 이상(17.3%), 20대(9.9%) 순 이었다. 장르별로는 음악 분야가 2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예술(일반 시민) 분야가 14.8%이고, 미술(12.3%), 문학(9.9%) 순으로 이어졌다.

서류심의를 신청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문화자치 협의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서류심의 진행 시, 문화 관련 전문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문화자치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의지, 지원의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균형적인 시각 반영을 위해 전문 분야를 안배하여 구성토록 하여 가급적 분과별로 특정분야의 인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심의 결과에 따라 협의체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지시키는 바이다.

심의위원들은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문화주체의 정의를 ‘화성시민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과 같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 예술인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 등 문화 관련 특정분야의 인원을 중심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하는 일반 시민 또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3명의 심의위원들은 문화자치 참여 시민협의체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비교적 엄격한 눈으로 서류심의에 임했다. 특히 지원의도가 불분명하거나 협의체 운영취지와 맞지 않은 인원, 신청서 작성에 소홀한 인원에 대해서는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비록 본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취지는 인정하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마음가짐과 협의체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화성시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는 전국 최초로 문화자치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보다 더 앞서서 구성된 선구적 사례로 지역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를 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해 탈바꿈해나가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선정된 분들에게도 지역 문화의 발전과 문화자치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화성시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 서류심의위원 일동**